

안녕!



오타루 문학관에 어서 오세요!







グローカルプロジェクト 推進公募事業



오타루문학관 전경

오타루는 메이지 시대 (1868-1912) 중기 이후 홋카이도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아주 큰 항구도시 중에 한곳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홋카이도의 오지 개척을 꿈꾸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일자리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각지에서 오타루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 많은사람들이 미개척지로 떠나는 대신 오타루 정착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다양한 독자적인 문화를가지고 온 그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망 지성 그리고 열정은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풍족함을 창출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소설가 시인 연구자를 포함한 문학자가 이 풍요한 토양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타루문학관은 그 동안 오타루의 문학 및 문화의 발전 양상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 특히 문학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해 오타루 문학사에 대한 식견을 널리 전하기 위해 1978 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역사적 물품과 각종 서적 자료를 갖춘 문학 자료를 비롯해, 귀중한 사진자료 등을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타루 선인들의 풍요로운 정신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문학관내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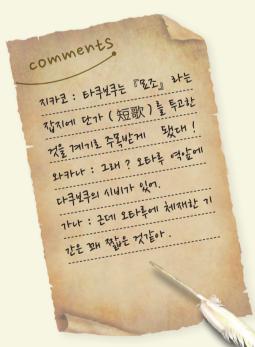


문학관 옆을 지나가는 구테미야선



△11150末

이시카인 다쿠브쿠 (1886-1912)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일본의 시인이며, 홋카이도 개척 시대 때 오타루를 방문한 문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사람입니다. 그는 이와테현에 있는 모리오카시 출신으로, 약관 16 살 나이에 유명한 문예지 『묘조 (明星)』에 신체시와 단가 (短歌)를 투고해 젊은 신인 시인으로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다쿠보쿠는 시부타미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로 일년 정도 근무한 후 홋카이도로 건너오게 되었고, 그 후 약 일년 동안 하코다테, 삿포로, 오타루, 쿠시로 등 여러 도시를 전전했습니다.

다쿠보쿠가 오타루에 머무른 것은 1907 년 9 월 말부터 1908 년 1 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그는 『오타루일보 (小樽日報)』의 신문기자로 일하면서투고자들을 위해 지면에 단가란 (短歌欄)을 만들거나 또는 비판 정신으로가득찬 논설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 3개월만에 갑자기 신문사를 그만둔 뒤 홋카이도 방랑를 마치고 도쿄로가서 거기서 살기로 합니다.

그는 『아사히신문 (朝日新聞)』의 교정 담당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단가를 창작합니다. 그 중에 몇몇 작품은 오타루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오타루를 떠나고 나서 수년 지난 후에 창작된 것이며, 나중에 그의 최초의 시집 『한줌의 모레 (一握の砂)』속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가난한 생활로 인해 결핵으로 스물여섯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번째 시집 『슬픈 장난감 (悲しき玩具)』은 그의 사망 후 2개월 뒤에 출판되었습니다. 현재 오타루시에는 그의 체류를 기념하여 다쿠보쿠의 단가 세수를 새긴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카와 다쿠보구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1920 년대 일본에 유학했거나, 또는 새로운 문학사조를 지향한 조선프롤레 타리아 문학자들에게 많이 읽힌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생활에서 비롯된 시심, 서민적인 서정을 노래한 그의 시는 식민지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슬픈 장난감』(1910) 원고 메모노트



오타루역 앞에 있는 다쿠보쿠 시비

그 밖의 문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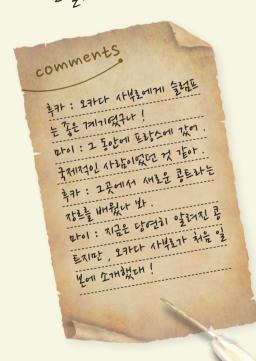
OTHERS

전통적인 단가 (31 음절로 구성된 시) 와 하이쿠 (17 음절로 구성된 시) 는 오타루에서 19 세기 후반 이후 널리 창작되고 낭독되었습니다. 부유층 집안에서는 많은 단가회 (歌会) 및 하이쿠회 (句会) 를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였고, 그 결과 단가와 하이쿠는 일반 대중 사이로 특히 교육을 잘 받은 젊은층 사이로 퍼져 나갔습니다.

01



日日三郎 マナロナイト学3 (1890-1954) で付け



오카다 사부로는 예전 에조 (蝦夷) 라고 불렸던 시절의 홋카이도 읍성 도시인 마츠마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일족은 어선의 선주 집안으로 일찍이 자산가였으나, 사부로의 아버지대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오타루시장이었던 백부 야마다 기치베 (山田吉兵衛) 의 도움을 받게되면서 오타루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부로는 최고득점자로 오타루 중학교에 합격하였고, 재학 기간 내내 최우수 성적을 받았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가가 되기를 열렬히 동경하였고, 졸업하자마자 백부의 집을 뛰쳐 나와 도쿄에서 수개월간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 후 세무서 관리가 되었지만, 다시 와세다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사이 자연주의 소설가로서 눈부신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 오카다는 작가로서 깊은 슬럼프를 겪게되면서 1921 년부터 1923 년까지 혈혈단신으로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 동안 그는 표현주의, 모더니즘, 그리고 콩트 (지적인 해학과 비평성이 풍부한 짧은 소설 장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그는 일본에 콩트를 소개했고, 콩트를 포함한 다양한 스타일의 소설을 쓰면서 동시에 다수의 문예잡지의 편집자로서도 활약했습니다. 또한 모더니즘 작가들과 함께 마르크스주의문학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대항하는 < 열세명클럽 > 이란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오카다는 딱 한번 영화 감독으로서 메가폰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제 2 차세계대전 후 그의 작품은 작가들은 물론 독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그가 전쟁당시 전쟁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창작 활동은 1954 년 그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표작으로 『파리―반역자의고백(巴里―叛逆者の告白)』『물질탄도(物質弾頭)』『가을겨울』『신로구교조키(伸六行状記)』등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오카다 사부로 감독 『어제의 장미』(1910) 촬영현장



대표작 『파리 - 반역자의 고백』 (1924) 표지



하야카와 미요지

学川三けら

まらにおとれるには1895-1962) ではかり、うれかり



하야카야 미요지는 오타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하야카와 료조는 최초의 오타루 개항 시절 오타루 발전을 위해 공헌한 거상중 한사람이었습니다. 미요지는 15 살 때 미국의 민주적인 시인 월트 휘트먼 (Walt Whitman:1819-1892)을 동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주목을 받기 시작한 동시대의 소설가이자, 일본에 휘트먼을 열정적으로 소개했던 영어 교수이기도 한 아리시마 다케오 (有島武郎:1878-1923)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미요지는 경제학을 배우하기 위해 홋카이도제국대학교 (현홋카이도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영어를 담당하고 있던 아리시마 다케오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가 문학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후 미요지는 경제학을 더욱더 연마하기 위해 본대학교와 베를린대학교에 유학했고, 그 사이 독일의 표현주의 문학과 연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빈에 들른 미요지는 그곳에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Joseph Alois Schumpeter:1883-1950) 에게 만남을 청하였고, 그 만남을 통해 이론경제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귀국 후 미요지는 자신의 모교인 홋카이도제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같은 시기 그는 저명한 소설가인 시마자키 도손 (島崎藤村:1872-1973) 으로부터 그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도손의 추천으로 문단에 등단하게 됩니다. 미요지는 경제학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 수많은 소설, 단편, 희곡을 집필했습니다. 그에 대표적인 희곡 중 하나인 『새로운 밧줄 (新しき縄)』은 도쿄제국호텔에서 상연 되었습니다.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그는 오타루상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고, 만년에 이르러서는 수년간 와세다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미요지는 홋카이도 동쪽에 이주한 사람들의 개척역사를 그린『흙과 사람(土 と 人)』이라는 여섯 부작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1962 년 오타루에서 뇌경색으로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면서 그 작품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흙과 사람』제 1 부~제 4 부 (1942-45)

하야카와 미요지의 스승 소설가 아리시마 다케오 (사진: 니세코쵸 아리시마기념관 제공)





나미키 본페이

03

20 세기 초 일본에서는 혁신적인 형식과 사상을 가진 시가가 꽃을 피었습니다. 나미키 본페이 (並木凡平: 18911941)와 그의 동료들은 구어체 단가를 발전시켰습니다. 다나카 고로하치 (田中五呂八1895-1937)는 일본에서 근대 센류 (川柳: 해학을 주제로 쓰는 하이쿠)의 대표자의 한사람입니다. 오다 간케이 (小田観螢: 1886-1973)와 도쓰카 신타로 (戸塚新太郎:1899-1965)는 오타루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단가계를 리드한 시인이었습니다. 오타루고등상업학교 (현오타루상과대학교)에 서는 〈룟규 긴샤(緑丘吟社)〉라는 하이쿠 결사가 결성되어, 그곳에서 다카하마 도시오 (高濱年尾: 1900-1979)와 히라노 보세쓰 (比良暮雪: 1898-1969)라는 우수한 하이쿠 시인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습과 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양형식의 시도 잇달아 창작되었습니다. 오노 유리코 (大野百合子: 1908-1938)와 사가와지카(左川 ちか: 1911-1936)는 두 사람 모두 요절한 여성시인인데, 오노는 우아한 시풍의 시인이었고 사가와는 지적이고 모던한 시를 쓴 시인이었습니다.



오노 유리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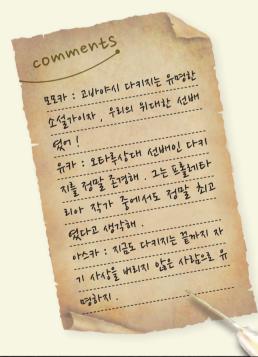
사카와 지카

04



小林多喜二

Idto=11 Tta/71 (1903-1933) 正圣到时到 经对外



고바야시 다키지는 아키타현 가와조에마을 (현 오다테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의 부모는 가난한 농민이었으나. 백부는 오타루로 이주해 제빵 업자로 큰 성공을 거 두었고 . 그는 그런 백부를 의탁해 빵공장을 도우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다키지 는 화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부의 반대가 컸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생활 을 보내면서 점차 그는 사회 속의 불공평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가의 꿈을 접은 후 다키지는 오타루고등상업학교 (현오타루상과대학교)에 진학해 학생때 단가나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오타루 문인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재능을 가진 작가라는 평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는 홋카이도척 식은행 오타루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과 『클라르테』라는 동 인 문예잡지 (『클라르테』는 프랑스 사회주의자 앙리 바르뷔스가 쓴 소설 제목에서 유 래) 를 펴냈습니다 . 그는 또한 사회주의적인 주제로 쓴 소설을 차례로 여러 잡지에 발표 했습니다. 그 작품들의 제목을 들여다 보면 『방설림 (防雪林)』. 『1928년 3월 15 일』.『게공선 (蟹工船)』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문학적이고 이데올로기 적인 활동이 원인이 되어 . 그는 1929 년에 은행원직을 잃고 맙니다 . 그 후 다키지는 도쿄로 가서 공산당의 공명자가 되었고 . 그 다음에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몇 번이나 투옥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 는 프롤레타리아 소설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1932 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이 격렬해짐에 따라 . 다키지와 그의 동지들은 지하활동이 불가 피하게 되었고. 그 시절 그는 이름을 숨기고 『당생할자 (党生活者)』라는 작품을 썼 는데 . 결국 배신을 당하면서 1933 년 2 월 20 일 체포되고 맙니다 . 체포된 다키치 는 쓰키지 (築地) 경찰서로 보내졌고 거기서 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 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제 2 차 대전 후까지 베일에 싸여있었지만. 그의 몇 몇 대표작은 사망 직후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현재 오타루에 있는 아사히 전망대에는 그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이러한 기구한 삶을 살다간 프롤레탈리아 문학자 다키지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당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다키치는 이시카 와 다쿠보쿠와 더불어 1920 년대부터 조선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자들에게 많은 감화와 영향을 미친 작가로서 한국 문단사에서도 기억되는 작가 이기도 합니다.





1925 년 오타루고등상업학교 (현오타루상과대학교) 정문

대표작 『게공선』(1929) 서점용 포스터





이토 세이

印藤敦

01号 4101 (1905-1969) 八見・をはった、はできった・りできった



이토 세이는 처음 홋카이도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일년후 오타루의 이웃 마을 시오야무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청 립 오타루중학교에 다니고 . 중학교 졸업 후에는 오타루고등상업학교 (현오타 루상과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한 시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같은 통학 열차를 타고 다니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시나 문학에 관한 귀중한 감화와 교시를 얻게 된 그는 점점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 다. 그 후 1926 년 『눈빛 길 (雪明りの路)』 이라는 제목의 서정시집을 간행 하였습니다. 세이의 시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는 곧 도쿄로 진출해 시인으 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일본에서는 서정시의 유행이 점차 사향으로 접어들고 있던 시기로 반대로 새로운 전위시가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세이는 시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영문학 이론을 번역하 게 됩니다. 그 이론이란. 예를 들면 하버트 리드 (Herbert Read)(1893-1968), 제임스 조이스 (James Jovce)(1882-1941), D.H. 로렌스 (D.H.Lawrence)(1885-1930) 의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때 조이스의 소 설『율리시스』를 번역하여 출판했는데 . 그것이 자극이 되어 그는 자신의 소 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토 세이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소설 . 수필 . 그리고 문예비평을 집필하였습 니다. 가령 『유령의 거리 (幽鬼の街)』. 『도쿠노 고로의 생활과 의견 (得能 五郎の生活と意見)』、『젊은 시인의 초상(若い詩人の肖像)』 등의 작품 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일본 문단사 (日本文壇史)』라는 근대 일본문학의 역사에 대한 장대한 연구서를 집필했고, 도쿄 고마바에 설립 된 일본근대문학관의 최초의 창설자 중 한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념비는 오 타루 시오야해안에서 가까운 < 고로다의 언덕 > 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시비에는 그의 아름답고도 슬픈 서정시 「바다의 고아 (海の捨 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타루고등상업학교에서 찍은 사진



대표작 『눈빛 길』(1926) 복각본 표지



오구마 히데오

오구마 히데오 (小熊秀雄: 1901-1940) 는 프롤레타리아시로 유명할뿐만 아니라. 그림. 선묘화. 비평. 심 지어 동화 장르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요시다 잇스이 (吉田一穂: 1898-1973) 의 주 요 작품은 명상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융합된 상징시였습니다. 가와무라 분이치로 (河邨文一郎: 1917-2004) 는 현대시의 파이오니아였습니다. 그는 1972 년 삿포로동계올림픽의 주제가 「무지개와 눈의 발라드(虹 と雪のバラード)」의 가사를 썼으며 그 노래는 당시 일본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센 세이셔널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젊은 소설가이자 국회의원이며 도쿄 도지사이기도 했던 이시하라 신타로 (石 原慎太郎:1932-) 는 소년 시절을 오타루에서 보냈습니다. 그는지금도 소설, 수필, 평론 집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나의 문학자들 comments

나미키 본페이

राप : पायाता दाला 이는 싶은 오타루의 기 对吸吐工油. उराजा देश्येमन ए 가를 떻게 됐다고 13H .

오구마 히데오

११४ : १२४ राजा १ हे से हो हो हो हो 아 작가는 노토자의 시생기수를 가지 시 0,0101= 到此: 工程子此! 村台 受刑 疑而. 나나 : 너리 모아들이 괴장의 독하 ct 211!

오노 유리코

나나 : 오노 유리코의 시는 1 北北北多州州 叶午 刊艺 们吸引时, 个十十年 初十七 北北至坐 叶介 可约是 们双 の、年代比比级的科等 ot7トイスでH.

이시하라 신타로

7 tut: 0/4/2+2+ 1/E+ 로는 유명한 HH우 이시 計計 光祖三의 初日出 राख्रायुई १६१३नाम 보냈다고 해.

문학관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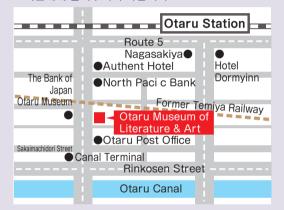
입장료

- ●문학관 : 어른 300엔 / 고등학생 150엔
- ●중학생까지 무료 / 오타루시민 70세이상 **150엔**

오타루시립미술관과 합동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티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전시관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하시거나 박물관 앞 카운터에 문의하십시오.

Access

- ●JR오타루역에서 도보 약 10~15 분
- ●중앙버스로 오타루운하터미널에서 도보 약5분
- ●무료 주차공간 20개
-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휴관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이 대체휴일)
- 연말연시 (12월 29일 ~ 1월 3일)
- ●기타 특별히 문학관 휴관이 있을 수 있음

영업 시간

9:30 ~ 17:00 (관람은 16:30까지 입장)

Floor Map

●3층

이치하라 아리노리 홀

●2층

오타루문학관 전시실 화장실 오타루미술관 전시실

1층

무료 티켓 _{화장실} 나카무라 갤러리 판매소 ^{화장실} 젠사쿠 홀

ABOUT US

韓国語による小樽文学館案内パンフレット作成プロジェクト(平成30年度グローカル推進公募事業) 한국어판 오타루문학관 안내 팸플릿 프로젝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오타루상과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팸플릿은 2018년도 오타루문학관 한국어 안내 팸플릿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어담당 이현준교수님과 2학년부터 4학년까지 18명의 일본학생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만든 것입니다. 이 팸플릿을 읽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오타루와 인연이 깊은 문학자들과 그들이살았던 이곳 오타루의 매력을 한껏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준(李賢晙/오타루상과대학교준교수)

구라모토 에미(리더),

가키사카 마이(부리더柿坂茉衣), 스키모토 아미(부리더杉本亜実)

가토 아스카(加藤明日香), 고토 모모카(後藤桃佳), 나가시마 미호(長嶋美穂), 나카타 시온(中田 詩音), 다니무라 게이나(谷村恵奈), 다카츠 가나(高津佳奈) 다카하시 지카코(高橋千香子), 도죠 와카나(東條和香菜), 무라카미 마오(村上 真緒), 미쿠마 가나(三熊花菜), 스도 후카(須藤風香)

시마다 유카(島田優花), 아베 유카(阿部友香), 오카모토 나나(岡本奈々), 하스이 리나(蓮井里奈)

